

정부 수립기 공자 번역과 민주주의 이식: *Confucius, the Man and the Myth*를 중심으로*

김 예 진
(성균관대)

1. 서론

유엔과 미국의 주도로 1948년 5월에 남한 단독 선거가 진행되고 이에 따라 1948년 8월과 9월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각각 수립되었다. 한반도 내에서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되고 조선이 결국 분단되자 단독 선거에 대한 반발도 잇따랐다. 단독 선거 및 단독 정부 수립과 관련하여 일어난 제주 4.3 사건과 제주도 파병을 반대하여 일어난 여수순천사건은 이제 막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기반을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위험 요소였다. 특히 여순사건은 “지역의 민간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전국적 규모의 “예외적 비상사태”로 규정되어, 이후 “반공국가 건설사업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김학재 2009: 156).

한편, 1946년 이후 미소 냉전이 심화되고 한반도에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진영과 소련이 이끄는 공산주의 진영이 직접 대립하게 되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더욱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1949년 초반에 미군의 완전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1023515).

철수가 이루어지고 같은 해에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미국에게 있어 한국은 공산주의의 전진을 막아야 할 전초기지가 되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의 탄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미국은 경제 원조, 군사 원조 및 문화 프로그램 시행 등을 통해 신생 정부에 민주주의를 확고히 이식하여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 것을 한국에 대한 주요 과제로 삼았다(NSC 48/2).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1949년과 1950년에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언론사였던 서울신문사와 미국 국무성 소속 주한 미국공보원이 각각 발간한 잡지 『신천지』와 『월간 아메리카』에서 발행한 *Confucius, the Man and the Myth*(이하 *Confucius*)의 번역본을 연구하고자 한다. *Confucius*는 이 두 잡지가 공통적으로 번역한 유일한 번역물이다. 그러므로 각기 성격도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른 두 기관이 번역한 동일한 저작을 연구한다면, 이 두 기관의 번역 방식이 동일한지 혹은 차별화되었는지, 그 방식은 발간 기관의 성격 및 당시 정치적 상황 속에서 해당 기관이 맡은 역할과 연관이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번역과 이데올로기, 제도 번역

번역학에서 이데올로기는 “개인이나 기관의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사건, 사실, 경험의 단면들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일련의 믿음과 가치라고 정의된 바 있다(Baumgarten 2012: 59). 르페브르(Lefevre)는 번역을 “다시 쓰기(rewriting)라고 정의하면서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로 이데올로기를 꼽고 있는데(Lefevre 1992: 7),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번역가 개인뿐만이 아니라 번역을 수행하는 기관을 통해 번역에 영향을 발현하기도 한다.

모섭(Mossop)은 실제 제도적 맥락에서 행해지는 번역을 제도 번역이라 명명하면서 번역이 수행되는, 혹은 번역을 의뢰하는 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정 기준들이 번역이 수행되는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논의한 바 있다(1988). 제도적 번역이란 “제도적 맥락(institutional settings)에서 수행되는 번

역이자(Kang 2009: 141), “기관의 이름으로, 기관을 대표하여 또는 기관을 위해 (Goudac 2007: 38, 강지혜 2017: 8에서 재인용) 수행되는 번역을 의미하는데, 제도적 번역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제도적 맥락, 즉 기관의 이데올로기가 번역자의 판단, 해석,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강지혜 2012: 17) 점이다. “기관의 이념과 목적, 규범과 규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번역가는 “텍스트 해석과 재표현의 과정에서 기관의 담론의 영향을 받게 되어(ibid. 2012: 17) 기관의 이데올로기가 담긴 번역물을 생산하게 되기 때문이다.

번역은 때로 나라 세우기(nation-building) 및 국가 정체성(national identity) 형성을 위해 동원되는데, 이때 역시 제도 번역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곤 하였다. 개화기 당시 조선이 문명개화를 향한 역사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진보와 발전의 대열 (김육동 2010: 95)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 시대적 상황을 인지하고 ““근대국가”를 건설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해 (김수자 2016: 195) 내기 위해 다양한 서양 서적을 번역하였던 신문관이 그 대표적 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주한 미군사령부 소속 공보처(Office of Civil Information)가 번역하였던 『동물농장』과 『나는 자유를 선택하였다』(차재영 2018: 201-207), 1950~60년대 냉전기 한국의 국책 사상 연구기관이 번역하였던 『실패한 신』의 예에서 보듯이 냉전 시기에도 제도 번역은 반공주의 및 민주주의 의식 함양의 도구로 활용되었다(이봉범 2022: 425-427).

이러한 역사적 사례들은 국가적 전환기에 번역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행해질 수 있음을, 그리고 국가 및 특정 기관이 그에 개입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즉, 국가와 기관들이 정치 이데올로기 및 국가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특정한 “믿음과 가치 에 따라 번역 프로젝트에 돌입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2 『신천지』, 『월간 아메리카』와 제도 번역

잡지 『신천지』는 해방 직후인 1946년 2월부터 한국전쟁 종전 이후 1954년 10월까지 서울신문사에서 발행한 월간 잡지다. 발행 부수가 당시 2급 일간 신문의 발행 부수와 맞먹을 정도인 2만 부를 넘어(김윤성 1965: 235) 높은 인기를 구가하였으며, 한국전쟁 3년 동안에도 4권이 발행되었다. 즉,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이라는 한국사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를 관통하며 “오피니언 리더로서 해방기 및 정부 수립기 독자들의 세계관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이봉범 2010: 211).

『신천지』에서 주목해야 할 점 중 하나는 이 잡지가 정부 수립 전후에 보이는 사상적 변화다. 1949년 서울신문사의 국유화에 따른 편집진 교체 이후 『신천지』는 그 논조가 급격히 우경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즉, 국유화 이전에는 중도와 인사들이 편집진을 이루어 반제, 반식민, 반봉건을 주장하던 논조와는 다르게 보수우익의 반공 논조를 띄게 되는 것이다(이봉범 2010: 200-211). 이는 국유화 이후 신문사의 사장직을 맡은 문인 박종화나 잡지의 편집진을 이루었던 김동인, 김윤성 등 대부분이 반공 의식이 투철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이승만 정부의 반공 담론을 그대로 답습하는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당연한 수순이었다(공임순 2016: 53-58). 게다가 편집진들은 일반 기사 선택은 물론 번역될 기사 선택에도 긴밀히 관여하였고 해당 기사에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을 적극 반영하였다고 알려져 있다(김윤성 1965: 235). 그 결과 편집진이 재편된 1949년 중반 이후 이 잡지는 정부의 반공 관련 정책을 홍보하거나 반공 담론을 옹호하며 기관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모습을 보인다(이봉범 2010). 다시 말해, 잡지 『신천지』는 제도적 맥락의 변화가 잡지 및 번역 구성에 영향을 미친 일례라 할 수 있다.

한편 잡지 『월간 아메리카』는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한 직후인 1949년 3월에서 1950년 7월까지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주한 미국공보원(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에서 발간한 종합 잡지다. 주한 미국공보원은 4천 년의 시간 동안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어둠 속에서 살았고 “미국에 의한 해방 후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비로소 미국 등의 열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던 한국인들의 호기심을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충족시켜야 하는 임무를 지고 있었다(NARA 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 in Korea). 『월간 아메리카』는 이러한 문화 프로그램의 하나로 주한 미국공보원이 발간한 잡지이자,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미국 국무성이 모스크바에서 발간하기 시작하였던 잡지인 *Amerika* 지의 한국판으로, “민주주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민주주의를 효과적 시스템으로 설득 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NARA Boyce Report: 27). 이에 더해 발간 당시 미국은 이 잡지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한국을 “내부의 혁명은 물론 외

부의 침입에 직면하고 있는 (ibid. 4) 국가로 정의하고, 한국인들이 “공산주의로 인한 두려움 을 느끼고 있기에 이러한 신생 정부가 “진정한 민주주의 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미국의 역할이 있다고 단언하면서(ibid. 4-5), 이 잡지의 목적은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한국을 대표할 효과적 시스템으로서 민주주의를 홍보하는 동시에 공산주의는 반민족적이고 한국인들의 이익에 해가 될 수 있는 친 러시아적 시스템임을 알리는 것 (ibid. 27)이라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미국 국무성이 대한 문화정책에 맞는 기사와 사진을 주한 미국공보원으로 보내면 번역을 위한 기사와 사진을 고를 우선순위가 『월간 아메리카』에 주어졌고(ibid. 9), 주한 미국공보원은 『아메리카』 잡지 시리즈를 발간하던 공보원들 중 유일하게 편집권을 갖고 있었다(편집부 1950: 17). 결국 『월간 아메리카』라는 잡지는 미군 철수 이후에도 한국이 미국에 우호적이고 공산주의의 위협에 맞서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국가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 미국 국무성과 주한 미국 공보원이 직접 개입하여 한국인들을 민주주의의 필요성과 공산주의의 유해성을 동일한 비중으로 교육하고자 한 선전 도구이자(ibid. 27) 제도 번역의 구체적 예라고 할 수 있다.

2.3 *Confucius, the Man and the Myth*

두 잡지에서 모두 번역된 *Confucius, the Man and the Myth*는 H. G. 크릴 (Creel)의 저서로, 1949년에 발간되었으며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공자의 삶을 다루고 있으며 2부에서는 인간, 교사, 혁명가로서의 공자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3부와 후기(Postscript)에서는 공자의 가르침이 민주주의와 어떠한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설명한다.

이 저서의 특이점은 저자가 공자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저자는 공자가 민주주의의 개척자이자 옹호자라고 주장하며 공자와 민주주의를 긴밀히 연관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 설정은 이 서적의 출간 당시 학자 및 비평가들에게 상당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공자 자신이 서양식 사고 체계와 관계가 없었고 심지어는 민주주의적 정부 체계에 대한 지식도,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차이에 대한 지식도 없던 시기에 존재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공자를 민주주의의 옹호자로 그리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이다(Lau 1954: 183).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한 비평가는 이 저서가 “저자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일반인 독자(*general reader*) 에게는 흥미로운 책일 수 있지만, 저자가 그리고 있는 공자의 상은 “왜곡된 거울 에 비친 왜곡된 상일뿐이라 단언한다(Duyvendak 1950: 358).

다시 말해 *Confucius*는 당시 공자의 일대기 및 유교 사상의 수용과 변형에 대해 논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무리하게 공자의 사상과 민주주의의 핵심 사상을 공명시키며 공자가 민주주의의 주창자이고 그의 가르침은 민주주의 사상과 다르지 않다 주장하였다 할 수 있다. 텍스트 선택이 일종의 선택적 전유로서 독자의 세계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과(Baker 2006: 71-74) 번역 기관의 제도적 맥락이 번역의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Mossop 1988: 65) *Confucius*가 신생 정부를 유지시키면서 반공주의를 펼치던 정부 기관지인 『신천지』와 한국을 반공 방벽으로 삼고자 한국에서 선전 프로그램을 전개하였던 미국 국무성과 미국 공보원이 발간한 『월간 아메리카』에서 번역되었다는 사실은 이 책의 선택이 번역 기관의 제도적 맥락, 즉 정치적 목표와 괴리된 선택이 아니었음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해방기 당시 정부 소유의 서울신문사 및 미국 공보원이라는 두 기관이 *Confucius*의 번역을 통해 한국에 민주주의를 설파하여 국가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자 하였던 방식을 논하고, 그 방식을 그들이 가진 목적성에 연관시켜서 이 번역이 각 기관의 목적을 어떠한 방식으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4 선행연구: 정부 수립기 『신천지』와 『월간 아메리카』의 제도번역

잡지 『신천지』와 관련하여서는 잡지의 사상적 변화를 기반으로 하여 해방기 및 정부 수립기 문학장의 형성에 초점을 맞추거나 잡지 기사 분석을 통한 『신천지』의 대외 인식 및 문학 담론을 다룬 논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지신영 2022; 이희정 2016; 이봉범 2010; 김준현 2009) 잡지에 실린 번역물 및 제도적 맥락의 관계와 관련한 논문은 많지 않은 편이다. 이봉범(2010)은 잡지사의 국유화 전후에 실린 번역물들을 소개하면서 이 잡지가 당시 독자들에게 세계사적 지평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국유화 전후의 정치적 지형 변화 역시 드러내고 있다고 논하고 있다. 한편 김예진(2019)은 서울신문사가 국유화되

기 전에 총 12회 연재 번역되었던 *Song of Ariran* 번역을 분석하여 당시 번역에는 번역 기관의 민족주의 의식과 중간과적 입장이 번역에 반영되었음을 논증하였다. 김예진과 탁진영(2021)은 1949년 후반의 *The Struggle behind the Iron Curtain*의 초역(抄譯) 번역 전략을 분석하여 이 번역에는 반공주의 선전을 위한 전략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국유화 전후 번역 기관의 제도적 맥락 변화를 반영하였음을 논하였다.

『월간 아메리카』와 제도 번역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김용권(1979)은 문학작품 번역이나 정치, 사회, 문화 관련 번역물들의 특징을 설명하고 번역을 통한 미국 문화의 소개가 한국의 미국문화 수용에 “이정표 (123) 같은 역할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미국은 한국을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가고자 하였다고 설명한다. 김예진(Kim 2019)은 『월간 아메리카』에 실린 번역물 중 일부를 원천 텍스트와 비교하여 그 번역 전략이 해당 잡지를 발간하였던 미 국무성과 주한 미국 공보원의 대한문화정책과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김예진(2021)은 『월간 아메리카』에 실린 영어 교육 기사를 분석하여 미국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와 관련된 교육을 시행하고자 하였음을, 이는 미국 공보원과 미 국무성의 대한문화정책과 일치함을 논한 바 있다.

하지만 동일시기에 다른 정부 기관에 의해 발간되어 당시 판매 부수라는 측면에서 수위를 다투었고(NARA Boyce Report Appendix: 1; 김용권 1979), 당연히 한국인들의 세계 인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던 두 잡지의 번역 전략이 두 잡지의 제도적 맥락과 이데올로기적 목표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한 연구는 행해진 바가 없다. 따라서 동일한 시기, 유사하지만 다른 목표를 가진 두 기관이 공통적으로 번역한 번역물 분석을 바탕으로 같은 텍스트의 번역이라도 제도적 맥락에 따라 그 내용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논의하는 데에서 본고의 기여하는 바가 있으리라 희망한다.

3. 방법론: 사회적 내러티브 이론

본고에서는 사회적 내러티브 이론(socio-narrative theory)을 기반으로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를 분석한다. 사회적 내러티브 이론은 내러티브를 “이야기 로, 즉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 (Somers 1994: 606) 주로 특정한 역사적, 제도적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야기(Ewick and Sibley 1995: 206)로 정의한다. 개인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인식하며(Somers 1992: 600), 심지어는 이러한 내러티브와 내러티브 속성(narrativity)을 통해 사회적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고 주장한다(ibid. 600). 즉, 어떠한 내러티브에 노출되느냐에 따라 이야기 청자 혹은 독자들은 각기 다른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가치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내러티브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 환경에 따라, 또한 이야기 화자의 의도, 관심사 등에 따라 다르게 이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Ewick and Silbey 1995: 206). 이야기 화자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내러티브를 취사선택하여 이야기를 재구성한 후 전파할 수 있는데(Baker 2006: 71-72), 이를 프레이밍이라고 부른다. 고프만(Goffman)의 경우는 개개인이 프레이밍을 위해 “적극적이고 의식적으로 개입 한다는 점보다는 개개인의 프레이밍 “해석 문제에 초점을 맞춘 반면, 베이커(Baker)는 개인이 특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러티브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적극적 전략 의 개념으로 프레이밍을 논한다(2006: 106). 베이커는 이러한 적극적 프레이밍 개념을 번역에 대입하여 번역의 과정을 통해 내러티브의 특정 측면이 목표 문화권에서 재협상되어서(renegotiated) 정치적 성격이 담긴 내러티브가 생산될 수 있으며, 번역가는 번역을 통해 자신이 의도한 방향으로 독자가 사건을 해석하게 만드는 적극적 프레이밍을 시도한다고 주장한다(Baker 2010: 118).

이러한 적극적 프레이밍의 주체는 개인 번역가일 수도, Middle East Media Research Institute (MEMRI)와 같은 사회단체(Baker 2006: 73-76), 혹은 Bloomsbury Qatar Foundation Publishing(Harding 2014)과 같이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번역 기관, 혹은 신문사(Harding 2012) 등의 기관일 수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번역 기관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특정 내러티브 프레이밍을 수행하여 독자들의 의식 전환을 꾀한다.

소머스는 내러티브의 종류를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한 개인에 대한 내러티브를 의미하는 존재론적(ontological) 내러티브와 직장, 정부, 국가 등 개인보다

더 큰 단위에서 통용되는 이야기를 의미하는 공적(public) 내러티브, 학계에서 소비되는 이야기인 개념적(conceptual) 내러티브와 거대 내러티브인 메타(meta) 내러티브가 그에 해당된다(Somers 1994: 617-620).

이러한 내러티브는 여러 방식을 통해 프레이밍 된다. 모호성 프레이밍(framing ambiguity), 시공간적 프레이밍(temporal and spatial framing), 선택적 전유(selective appropriation), 이름 붙이기(labeling), 참가자 재배치(repositioning of participants)가 바로 그런 방식인데(Baker 2006: 105-139), 본고에서는 이 중에서도 선택적 전유와 이름붙이기, 참가자 재배치 전략에 따른 적극적 내러티브 프레이밍의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선택적 전유란 “한 내러티브가 속해 있는 더 큰 내러티브의 특정한 측면이나, 원천 텍스트 및 발화에 내재된 내러티브의 특정 측면들을 억제하거나 강조하거나 상술하기 위해 사용되는 삭제 및 첨가의 방식을 의미한다(Baker 2006: 114). 여기에는 본문의 첨가 및 삭제라는 번역자의 개입은 물론이고, 특정 텍스트, 저자, 언어, 문화의 선택과 같은 좀 더 고차원적 선택 역시 포함되는데, 이러한 선택을 통해 특정한 목소리는 지워지고 역자가 선택한 목소리만 남게 된다(ibid. 114). 이름붙이기는 “어휘 항목이나 용어 혹은 구문을 이용하여 사람, 장소, 그룹, 사건 혹은 내러티브의 주요 요소를 정의하는 행위(ibid. 122)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 재배치는 특정한 관계 속에 속해 있는 참가자의 순서나 위치를 바꾸어 그들이 속한 내러티브의 역할을 바꾸게 되는 방식을 의미한다(ibid. 132). 이러한 세 가지 프레이밍 기법을 기반으로 *Confucius*의 번역본인 「공자와 민주주의」와 「공자론」의 결텍스트와 본문을 분석하며 이 두 텍스트에서 프레이밍 된 존재론적 내러티브와 공적 내러티브에 초점을 맞추어 두 번역 기관의 제도적 맥락이 두 번역텍스트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었는지 살피고자 한다.

4. 분석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Confucius*의 결텍스트¹⁾를 분석하는 것은 물론, 본문을 거시

1) 슈네트에 따르면 결텍스트란 “저자명, 책제목, 서문, 삽화, 표지에 쓰인 글, 띠지에 쓰

단계 및 미시 단계에서 연구하였다. TT1은 『신천지』에 실린 번역문인 「공자와 민주주의」를, TT2는 『월간 아메리카』에 실린 「공자론」을 의미한다.

4.1 결텍스트 분석

4.1.1 서문 분석

TT1과 TT2 모두 원문에는 없는 서문을 덧붙이는 선택적 전유 전략을 보여 준다.²⁾ 두 텍스트의 제일 앞장, 제일 위쪽에 실린 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TT1] 人類가 지금까지 傳承해온 敬虔한 貴人이라는 것은 사실 假자에 지나지 않는다. 말하자면 孔子 같은 이의 眞實하고 革新的인 敎理를 帝王的인 野望을 助長하는 데에 腐敗 시켜버린 全體主義者 君主의 發見인 것이다.

그는 그時代에 있어서의 諍³⁾義家가 아니고 革命家였던 것이다.⁴⁾ (136)

[TT2] 이 記事는 뉴-욕市 죠니 데이 會社에서 發行한 同名의 책에서 拔萃한 것이다. 著者 H. G. 크뤼-르氏는 일리노이州 시카고市 시카고大學의 『古代中國文學과 制度』의 助敎授이다. 그는 『中國의 發生』, 『古代中國文化研究』 등 其他의 著書가 있다. 이 現代의 孔子傳記를 쓰기위하여 그는 古代中國의 文獻研究에 二十年間을 精進하였던 것이다. (4)

TT1의 서문 작성자는 본질적으로 혁신적인 공자의 가르침이 공자 시대 이

인 글 처럼(김순영 2019: 234) 텍스트의 “문턱(threshold) 이자 “정의되지 않은 지대(undefined zone)로서 텍스트의 안과 밖, 그 어느 곳으로도 명확하게 경계 지어지지 않은 곳을 의미한다(Genette 1997: 2). 이러한 결텍스트들은 “실제로 한 사람의 독서 행위를 총괄하는 인쇄된 텍스트의 주변부이며, 저자의 해설(commentary), 혹은 저자가 공인한 해설이 제공되는 곳(ibid. 2)으로, 번역의 경우 결텍스트는 번역가들이 자신들의 의제(agenda)를 제시하는 장소이거나, 텍스트나 저자에 대한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적 동감 혹은 반목을 드러낼 수 있는 장소이다(ibid. 25). 그러한 까닭에 번역가들은 결텍스트를 통해 독자의 글 읽기 및 해석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

- 2) 두 텍스트 모두 서문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 3) 해당 한자가 “諍”으로 보인다는 한문학자의 의견을 받기는 하였으나 본문의 인쇄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관계로 확실하지는 않다는 점을 밝힌다.
- 4) 모든 띄어쓰기와 맞춤법 표기는 원본의 것을 따랐다.

후의 사가들에 의해 전체주의를 방어하는 데 사용되느라 “부패 되었다고 꼬집으면서 오히려 공자가 혁명가였다고 주장한다. 즉, 서문 작성자는 서문을 통해 “경건한 귀인 이라는 공자의 이미지는 전체주의 방어를 위해 후대인들에 의해 그려진 것이고 실제 공자는 “진실 하고 “혁명적 인 사람, 즉 전체주의와는 상관 없는 사람이라는 내러티브를 프레이밍 하였다 볼 수 있다.

또한 서문 작성자는 공자를 묘사하며 “진실 과 “혁신적 이라는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공자를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내러티브를 형성한 반면, 공자의 가르침을 왜곡시킨 전체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제왕적 야망 을 “조장 하는 데에 “부패 시킨 이들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부정적인 내러티브를 프레이밍 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저자는 공자가 민주주의의 주창자라고 주장하므로 공자의 “진실 하고 “혁명 적인 이념은 곧 민주주의와 상통한다고 가정한다면 서문 작성자는 서문에서부터 공자 자신에 대한 존재론적 내러티브의 프레이밍을 통해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대립 관계를 명확히 그리면서 전체주의를 폄하하는 공적 내러티브를 공고히 하였음을 알 수 있다.

TT2의 서문은 원문의 저자를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크릴(H. G. Creel)이 미국 저명 대학의 교수라는 사실을 밝히고 그의 저서를 소개하면서 그의 전문분야가 “고대 중국 문학과 제도 이며 그가 중국과 관련하여 여러 권의 저서를 집필하였음은 물론 이 저서를 쓰기 위하여 무려 “20년 동안 연구에 “정진 해왔다고 밝힌다. TT1과는 달리 TT2의 서문 작성자는 저자의 능력을 강조하는 내러티브를 통해 이 저서의 논리적 타당성을 담보하는 전략을 사용한 것이다.

4.1.2 제목 분석

[ST] Confucius, the Man and the Myth; Tradition and Truth; Postscript

[TT1] 孔子와 民主主義

[TT2] 孔子論

제목은 “본문의 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읽는 사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이혜승 2015: 5), “저자의 특정한 관점을 표현하거나, 독

자들이 본문을 특정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이해하는 데에 기여하는 해석들을 제공 (이원표 2006: 119, 이혜승 2015: 5에서 재인용) 한다. 베이커 역시 제목 번역을 이름 붙이기(labeling)로 소개하면서 제목 번역을 통해 내러티브가 (재) 프레이밍 되어(Baker 2006: 129) 독자들의 가치관 형성에 일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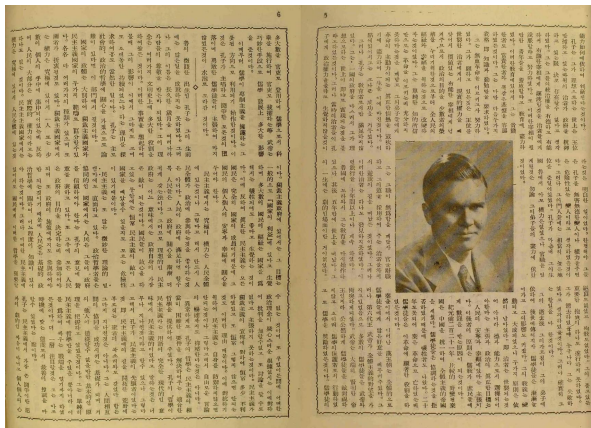
TT1은 ST의 제목을 그대로 번역하지 않았다. 앞으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TT1은 *Confucius* 중에서도 1장인 “Tradition and Truth 만을 선정하여 번역하였다. 따라서 TT1의 제목은 원제인 “Confucius, the Man and the Myth 와 1장의 제목인 “Tradition and Truth 를 대상으로 한 번역이라 할 수 있다. 우선 ST의 제목인 “Confucius, the Man and the Myth 는 공자라는 한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되 그의 삶과 가르침은 어떤 모습을 하였는지, 공자의 가르침은 이후 세대를 통해 어떻게 왜곡되어 왔는지를 밝히는 데 상당한 분량을 할애한 원천 텍스트의 구성을 반영하였다 볼 수 있다. 또한 1장의 제목 역시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온 공자가 전체주의자라는 인식과 실제 진실, 즉 그가 민주주의자에 가깝다는 진실을 묘사하는 장의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목들이 TT1에서는 “공자와 민주주의 로 탈바꿈되었다. 원제에서는 볼 수 없는 “민주주의 라는 단어가 첨가된 것이다. 이로써 원천 텍스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자의 삶과 가르침보다는 공자와 민주주의의 관계, 즉 공자의 가르침이 “민주주의 와 관련이 있다는 진실(Truth)을 강조하는 내러티브가 프레이밍 되었다. 새로운 제목을 통해 독자들은 TT1을 읽는 동안 공자와 민주주의가 어떠한 점에서 관련되어 있는지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TT2에서는 ST 중 1장과 후기를 번역하였다. 즉 ST의 제목과 1장의 제목, 후기라는 제목을 모두 합하여 위와 같이 “공자론 으로 번역한 것이다. “공자론 이라는 이 제목에서는 TT1에서 보였던 공자와 민주주의의 연관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대신 이 글이 누군가 공자를 대상으로 하여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 글이며 공자라는 인물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다룰 것이라는 암시가 담겨있다.

4.1.3 결텍스트 이미지 분석

TT1과는 달리, TT2의 두 번째 쪽 중간 부분에는 <그림 2>와 같은 이미지가 삽입되어 있다. 이 이미지는 다름 아닌 저자의 사진으로, 원천 텍스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미지다. “충패비안 박택호⁵⁾ 氏提供 이라고 그 출처가 밝혀져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도 미국 국무성에서 확보하여 미국 공보원으로 보낸 이미지일 것으로 추정된다. 저자의 사진이 TT2의 본문에 삽입되면서 사진 속 인물인 크릴이라는 미국인이 이 글의 저자라는 사실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즉, 앞서 언급한 저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서문 삽입과 함께 저자의 사진까지 제공함으로써 저자의 존재를 더욱 명확히 드러내어 본문의 권위를 부각시키는 내러티브 프레이밍 전략이 사용되었다 볼 수 있다.

<그림 1> 「공자론」 기사의 두 번째, 세 번째 면



4.2 본문 분석

4.2.1 거시 단계 번역 전략 분석

*Confucius*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6장의 본문과 Postscript로 이루어

- 5) 『월간 아메리카』 편집진들은 그들만의 영어 표기 방식을 설정해 사용하였다(김예진 2019). 충효는 번역본에서는 복자음으로 표기되었으나 동일하게 표기하기가 불가능하고, 글자 이미지 역시 잡지의 인쇄 상태가 불량하여 본문에 신기 어려워 위와 같이 적는다.

져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Confucius, the Man and the Myth* 구성

장	제목
Background	
	Preface
	Map
1	Tradition and Truth
2	The Evidence
3	The China of Confucius
Confucius	
4	Biography
5	The Man
6	The Disciples
7	The Teacher
8	The Scholar
9	The Philosopher
10	The Reformer
Confucianism	
11	The “Weaklings
12	From Man to Myth
13	Disaster
14	“Triumph
15	Confucianism and Western Democracy
16	Confucius and the Republic of China
Postscript	

위의 <표 1>에서 보듯이 서문과 지도를 제외하고 1부 “배경 에서는 공자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 그의 생애에 대한 짧은 소개 및 그가 후대 서양 및 중국 사상에 미친 영향(1장), 공자를 이해하는 데 기반이 된 자료 소개(2장), 공자가 살았던 시대의 중국에 대한 설명(3장)이 제시되어 있다. 2부 “공자 에서는 그의 일대기와 그의 제자들, 그리고 공자가 교사이자 학자, 철학자이자 개혁가로 활동하였던 내용 등과 같이 공자의 다면적 특성이 조명되고 있다. 마지막 3부에서는 공자 삶의 후반기에 대한 설명, 유교철학이 공자 사후 후대에 이어지면서 어떻게 변형되고 권력에 따라 이용되어 왔는지에 관한 고찰, 유교철학과 서구 민주주의 및 중화민국 수립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월간 잡지

라는 두 잡지의 특성상 원문 기준 28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저서의 전문을 번역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두 잡지 모두 특정 장을 선택하여 번역하였는데, 두 잡지는 번역할 텍스트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4.2.1.1 TT1의 경우

우선 TT1은 전체 16개 장과 후기 중에서 1부의 1장인 “전설과 진실 (Tradition and Truth) 만을 번역하였다. 1장에서는 공자가 미천한 태생이었다는 사실, 공자가 세습 귀족정치의 강화를 목표로 했다는 전설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귀족들이 자신들의 호화로운 삶을 위해 평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을 시정하는 데 인생을 바치고자 하였다는 사실, 교사로서 공자는 세습 권력보다는 덕과 능력을 갖춘 이들에게 권력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자들을 교육하고자 하였다는 사실, 정부의 목적은 백성들의 행복을 도모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는 사실 등이 제시된다. 또한 공자의 “민주주의적 생각에 당혹감을 느낀 이후 세대 황제의 지지자들에 의해 공자 사후 유교가 전제정치의 정당화에 악용되었지만 이는 공자가 표방하였던 점을 왜곡시킨 것이라는 점, 오히려 공자는 이후 세대, 특히 유럽의 민주주의 이상의 발전 및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중국의 쑨원 역시 공자와 맹자를 “민주주의의 대표적 인물이라고 선언하였다는 점과 함께 공자가 후대에 잘못 이해되었다는 주장 역시 뒤이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앞서 제시한 <표 1>의 내용과 비교해 본다면 “전설과 진실이라는 1장은 이후 전개될 내용을 요약하는 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TT1은 2장부터 전개되는 공자가 가진 특정한 역할에 집중하기보다 2장 이후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전체 내용을 조망하는 동시에 결국에는 그가 민주적 정신을 갖고 있던 사람임을 알리고 공자를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해주는 요약문만을 번역하였다. 1장을 제외하고는 공자와 민주주의의 연관성이 3부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주제별로 제시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역사 혹은 기관⁶⁾이 1장만을 선택하는 선택적 전유 전략을 사용한 것은

6) TT1과 TT2 모두 번역가 및 번역 기관이 번역 과정에 개입하는 정도를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번역가라는 단정적 어휘보다는 “번역 주체, “번역가 혹은 기관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공자의 다면적 부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면서도 그가 민주주의의 주창자였으며 그의 사상이 후대 전체주의자들에게 농락당했음을 제한된 지면 안에 모두 보여주고자 하였기 때문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4.2.1.2 TT2의 경우

TT2는 “전설과 진실 이라는 1장을 번역한 점에서는 TT1과 동일한 전략을 취했지만 후기를 덧붙여 번역하였다는 점에서 TT1과 차별화된다. 특히 후기는 1장과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후기에서 저자는 주로 민주주의 체제와 독재주의⁷⁾를 비교, 대조, 분석하고 민주 정치와 독재 정치에 있어 권력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민주주의 체제의 약점은 무엇인지를 논하고 있다. 이때 내용의 상당 부분은 저자의 논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자는 민주주의의 약점을 예견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준 사람으로 간략히 인용되고 있다. 즉, 후기에서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차별화되는 측면, 그리고 한 사회가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해 나갈 때 마주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 그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독재주의의 위협에 관한 저자의 생각들을 독자들에게 알려주어 독자들이 이를 익혀 민주주의를 잘 지켜나갈 방도를 찾아 나가게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결국 번역가 혹은 기관은 *Confucius*에서 다루고 있는 공자와 관련된 수많은 주제들을 생략하고 『신천지』의 경우와 같은 1장과 민주주의-독재주의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마지막 장만을 선택하여 독재주의의 위험성, 그리고 독재주의의 위협 앞에 해야 할 일과 같은 공적 내러티브를 프레이밍하였다 볼 수 있다.

TT2의 번역 텍스트 선택에 있어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은 후기의 상당 부분이 번역 과정에서 누락되었다는 사실이다.

[예문 7]

[ST] History has shown that true and effective democracy is a political condition difficult to bring about, and still harder to perpetuate. By comparison, authoritarianism is a hardy growth. There are a number of

7) 원천 텍스트의 “totalitarianism”을 TT1에서는 “전체주의”로, TT2에서는 “독재주의”로 번역하였다.

reasons for this. Under authoritarian rule the philosophy of the state and the duty of the individual are prescribed by the government, with relative clarity. In a democracy, however, the state has no philosophy (except democracy in the broadest sense), and the duty of the individual is not at all clear. It may be his duty either to support or to oppose the government, and no tribunal save his own conscience can tell him which it is.

There are many, however, who are eager to tell the citizen of a democracy what is his duty, with every artifice of oratory. Quite rightly, the citizen regards with scepticism those who are so zealous to do his thinking for him. He is faced by a difficult choice. Shall he entrust the fortunes of the state to professional politicians, who may be of questionable integrity, or to the well-meaning but unskilled efforts of amateurs? (Creel 1949: 287)

[TT2] 생략

위의 예문은 번역 과정에서 모두 생략되었다. ST에 따르면 민주주의 국가는 철학이 없으며 개인의 의무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개인은 정부를 지지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으며 그에 대한 판단은 자신의 양심에 맡기는 체제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은 국가의 운명을 인격이 의심스러운 전문 정치가에게 맡기거나 의도는 좋으나 능력이 부족한 아마추어에게 맡길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데, 이는 민주주의 체계의 근본적인 딜레마라고 설명된다. 이에 더해 국민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해야 하지만 어떤 신념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독재 정치에 비해 취약하다는 점이 언급되고 있는데 국민의 정치 참여에 대한 딜레마, 신념을 강제할 수 없다는 딜레마는 일견 민주주의의 단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국민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기도 하다. 하지만 위의 예문에서처럼 민주주의 국가에는 철학이 없다거나, 우둔한 사람 혹은 인격이 의심스러운 사람에게 권력을 맡기는 경우가 생긴다는 인식 등은 아직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무르익지 않은 독자들의 민주주의 관련 인식을 긍정적으로 강화할 수 있으리라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4.2.2 미시 단계 번역 전략 분석

4.2.2.1 TT1의 경우

[예문 1]

[ST] Twenty-five hundred years ago there was born in China a child whose life was to influence human history as few have done. (Creel 1949: 1)

[TT1] 지금부터 二天五百年前 中國에 人類史上 稀有한 德性을 베푸른 者가 誕生하였다. (136)

[예문 1]에서는 “influence human history”를 “희유한 덕성을 베푸른”으로 번역하였다. 공자의 덕(德)이란 주로 ‘재물을 얻는 것’에서부터 ‘도덕적인 덕성이나 예(禮)를 내 마음에 얻는 것’ 혹은 ‘고유한 선(善)을 보존하는 것’ 등으로 풀이된다(안중수 1994: 74). 따라서 번역본에서는 “덕성 과 “베푸른 이 결합되어 공자의 영향력, 즉 그가 인류사에 베푼 가치와 선에 대한 존재론적 내러티브가 긍정적으로 프레임 되었다.

[예문 2]

[ST] In fact, he advocated and helped to bring about such sweeping social and political reforms that he must be counted among the great revolutionaries. (Creel 1949: 1)

[TT1] 事實 그는 이와같은 훌륭한 社會와 政治的 改革을 唱導하였으며 助力을 아끼지않았고 그리고 이로서그는 偉大한 革命家사이에 自己의 地位를 차지하였던 것이다. (136)

이 예문에서 공자가 주도한 개혁의 “범위”를 의미하는 “sweeping”은 번역 과정에서 공자가 실시한 개혁의 “성격”에 대한 내러티브로 다시 프레임 되었다. 즉, “사회 전반에 행해진 개혁이 “훌륭한 개혁으로 프레임 된 것이다. 번역 주체는 “helped” 역시 “아끼지 않았고”라는 어휘를 첨가하여 번역하면서 공자가 시대에 기여한 행위를 더욱 긍정적으로 프레임 하였다. 수동형 구문인 “must be counted”가 “차지하였던 것이다”라는 능동형 문장으로 대체되면서

공자의 위대함이 강조되는 내러티브가 프레이밍 되었다. 이러한 전략들은 공자가 혁명가로서 시행했던 일들을 ST에 비해 긍정적으로 프레이밍 하여 그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문 3]

[ST] Gradually he gathered about himself a group of young men to study his doctrines, and so he became known as a teacher. (Creel 1949: 2)

[TT1] 그는 漸次的이나마 自己의 敎理를 베풀기위하여 一群의 青年學徒들을 모아 敎育을 시켰다. 그럼으로 그는 敎育者로서 그의 이름이 널리알리어졌다. (137)

위의 예문에서는 “널리 라는 단어가 덧붙여짐으로써 공자의 유명세와 영향력이 더 긍정적으로 프레이밍 되었다.

[예문 4]

[ST] Returning to Lu he resumed his teaching. (Creel 1949: 3)

[TT1] 自己의 古國으로 도라오자 그는 敎育事業에 몰頭하였다. (138)

이 예에서 “resume 이 TT1에서는 “몰두 로 교체되면서 敎育을 향한 공자의 진정성이 더 긍정적으로 프레이밍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문 5]

[ST] After his death, as his teachings were handed down from one generation of disciples to another, the Confucian group gradually grew in size and influence. (Creel 1949: 3-4)

[TT1] 死後, 그의 敎理가 弟子로부터 代代로繼承되었을 때 儒敎學團은 漸次로 擡頭하고 크다란 感化를 이르켰다. (138)

위의 예에서 TT1은 “grew in size and influence 를 “크다란 감화를 이르켰다 로 번역하였다. 번역 과정에서 “크다란 이 덧붙여진 것은 물론, “influence 역시 “좋은 영향을 받아 생각이나 감정이 바람직하게 변화함 (표준국어대사전)이라는 뜻의 “감화 로 대체 번역되면서 후대에 전해진 공자의 가르침이 긍정적

으로 프레이밍 되었다.

[예문 6]

[ST] Confucius was an important intellectual ancestor of the Chinese Revolution. Sun yat-sen declared that “both Confucius and Mencius were exponents of democracy, and gave to the Republic of China a constitution that bears the deep impress of Confucian principles. Yet some of his countrymen today think of Confucius as a reactionary who helped to forge the chains of despotism, and regard him with hostility or indifference. (Creel 1949: 5-6)

[TT] 孔子는 中國革命을 招來한 顯著的 精神的 開祖였다. 孫逸山은 『孔子와 孟子는 民主主義의 唱導者들이다』라고 釋明하였고 또한孔子는 中國共和政體에 儒敎의 深遠한 敎化를 이르킨 原理를 創始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中國人 가운데는孔子를가르쳐 專制政治의 鐵鎖를 鑄造하는데 이바지한 保守主義者로서 敵愾心과 冷然한 態度를 禁치않는者가 있다. 事實은 이와는 正反對인 것이다. (136-137)

위의 예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번역 주체는 “사실은 이와는 정반대인 것이다 라는, 원문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구를 삽입하는 선택적 전유를 통해 공자에게 씌워진 오해, 즉 공자가 전제정치 수호자라는 오해를 반전시키는 내러티브를 프레이밍 하였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이 본문이 원래의 컨텍스트를 벗어나 재배치되었다는 점에 특이점이 있다. ST의 5~6쪽에 등장하는 위 문장들이 훨씬 앞부분, 즉, ST의 1쪽에 해당되는 목표 텍스트 사이에 삽입된 것이다. ST의 5~6쪽에 위의 발췌문과 함께 제시된 텍스트는 위의 예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생략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원문이 선택적으로 재배치되었다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발췌문이 어떻게 재배치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ST에서 1장의 내용은 앞서 거시 단계 번역 분석 섹션에서 순서대로 논의된 바가 있다. ST에서 위의 발췌문은 공자의 사상이 프랑스 혁명의 배경이 되어 간접적으로나마 미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 다음에 제시되었다. 이 발췌문 이후에는 왜 공자가 그 자신의 시대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 시대에서도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설명된다. 즉, ST에서는 유럽의 철학

자들이 민주주의의 모태가 되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공자의 사상을 활용하였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이후에 공자가 전체주의자라 오해를 받았어도 공자가 전체주의와는 상관없음을 논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 위치하고 있었던 위의 예문이 TT1에서는 본문의 첫 부분, 그러니까 공자의 미천한 태생에 대해 설명하고 그가 세습 귀족 정치를 지속하는 것을 지지하였던 보수론자라는 평을 받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짧은 요약 뒤에 재배치되었다. 이 예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공자의 청년 시대부터의 삶을 되짚어 보며 혁신적인 공자의 사상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TT1에서 시, 공간적으로 재배치된 위의 예문은 1장 초반부 공자의 생애에 대한 짧은 요약과 그 이후에 전개되는 공자의 일생 및 사후 오해에 대한 글 사이를 이어주면서 “공자는 민주주의의 주창자 라는 선명한 내러티브 프레이밍을 통해 그가 “전체주의자 였다는 오해를 미리 해소하고 있다.⁸⁾

또한 TT1의 경우, 이 발췌본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에서는 공자 사상을 소개하는 것 외에는 공자가 민주주의와 연관되었다는 직접적 언급은 없고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전체주의 정부가 권력 유지를 위해 공자의 가르침을 왜곡하였다는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발췌문이 재배치됨으로써 그 이후에 이어지는 공자의 사상이 “민주주의 라는 프레임 안에서 읽히게 되는 것이다. 즉, ST 안에서는 민주주의와의 직접적 연결 고리 없이 서술되는 공자의 사상이 이러한 본문의 재배치를 통해 민주주의적 정신으로 프레이밍 된 것이다. 번역 주체는 이러한 참가자 재배치 전략을 통해 공자와 민주주의와의 상관관계를 강조하고 공자를 전체주의자로 만들어버린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는 내러티브를 만들어내었다.

8) 흥미롭게도 『월간 아메리카』의 번역본 역시 해당 부분을 동일하게 재배치시키고 있다. 이는 곧 이 두 편의 번역본 사이에 상당한 연관 관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TT2는 1949년판 원본을 번역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기관이 참고하였던 편집본이 있었으리라 가정하기 어렵다. 또한 TT1과 TT2가 번역한 부분이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TT2가 번역될 1950년 당시에 역자가 앞서 번역되었던 TT1을 참고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4.2.2.2 TT2의 경우

TT1의 번역과는 달리, TT2의 경우 주로 후기 번역에서 ST와는 다른 내러티브 프레이밍 전략이 사용되었다.

[예문 7]

[ST] Reflecting upon these facts, it is impossible not to ask what is the reason for the extraordinary persistence of his influence. (Creel 1949: 286)

[TT] 이러한 事實을 想起하여볼 때 그의 影響이 어찌서 그다지도 크며 또 오래동안 持續되었느냐 하는 理由를 探究하여봄도 當然한 일이다. (6)

위의 예에서는 공자의 영향력이 오랫동안 끈질기게 지속되었다는 원문에 “그다지도 크며 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선택적 전유를 통해 공자의 영향력을 더욱 긍정적으로 프레이밍 하였다.

[예문 8]

[ST] Under authoritarian government the end is commonly conceived to be “the good of the state, which may sacrifice to itself the welfare of a great many of its citizens. (Creel 1949: 287)

[TT] 民主主義國家에서는 權力은 窮極에 있어서 人民全體에 있는 것이다. 獨裁主義政府에 있어서는 그 目標은 一般的으로 『國家의 利益』에 있다고 생각하며 大多數의 國民의 福祉는 國家를 爲해서는 犧牲되어도 좋다고 生覺하는 것이다. (6; Kim 2018: 279; Kim 2019: 100)

이 예에서는 확정성이 떨어지는 “may 대신 “좋다고 라고 번역함으로써 독재주의는 국민의 희생을 당연시한다는 내러티브를 프레이밍 하였다. 이는 곧 인민들에게 권한을 허락하지 않는 독재주의 및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예문 9]

[ST] In a democracy, the ultimate authority lies with the whole body of the people, who, as regards the political sphere, are too often not even

amateurs. For an amateur is a “lover,” and the citizens of democracies are not always fond of participating in the processes of politics. The more satisfactory their government is, the less interest they will take in it. Thus a good democratic government is, in a sense, its own greatest foe. For when its citizens are not vigilant, there is always the danger that enemies of democracy may be able to take over the state. (Creel 1949: 287)

[TT] 민주主義에서는 窮極의 權力은 人民全體에 있는것이나 (생략)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人民全體가 政治에 參與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人民이 政府에 滿足하면 할수록 人民들은 그 政府에 關心을 漸漸 더 적게 갖는法이다. 그러므로 理想的인 民主政府는 어느 意味에서는 政府自身의 가장 큰 適이 되는 것이다. 國民들이 放心을 하고있는 동안에는 恒常 民主主義의 適이 그 國家를 빼았을수 있을지도 모르는 危險性이 있기때문이다. (6)

위의 예문은 독재주의가 민주주의를 침범할 수 있게 하는 민주주의의 약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만족스러울수록 정치에 관심을 덜 가질 수 있기에 민주주의의 적인 독재주의, 즉 공산주의가 민주주의 국가를 전복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⁹⁾ 여기서 밑줄 친 부분은 번역 되지 않았다. 궁극적 권력을 갖게 되는 인민이 정치라는 분야에 있어서는 아마추어보다도 못할 때가 있다, 아마추어는 “사랑 이라도 하는데 민주주의 체제의 시민들은 늘 정치를 “사랑 하지도, 늘 정치 참여를 즐기지도 않는다는 의미의 본문이 생략된 것이다. 이 예는 민주주의 이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대상인 잠재적 독자에게 민주주의와 민주국가의 시민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는 내러티브를 삭제하는 선택적 전유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4.3 논의: 『신천지』와 『월간 아메리카』의 공자 번역

「공자와 민주주의」가 번역되었던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민주주의 정부 임을 기치로 탄생되었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1948년부터 남부를 휩쓴 반란으로 인해 1949년부터 이승만 정권은 반대파들을 공산주의자로 정의하며 국가보안법

9) 트루먼독트린과 같은 미국 대외정책 관련 문서에서는 “totalitarianism 을 소련을 위시한 공산주의와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다(Truman Doctrine 1947).

정비 등, 반공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즉, 사회적 혼란 속에서 내부의 사상적 단속, 대통령 및 정부 권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정부는 반공주의 전파를 채택한 것이다(서중석 2009). 잡지 『신천지』가 정부의 기관지가 된 시기도 이때였다. 잡지의 국유화로 인해 사장과 편집진들도 정부와 상당한 밀착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는데(김예진 2021: 11-12), 이들은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임명되었을 뿐 아니라(국무회의록 1949. 6. 15.) “대통령에의 무조건적 지지를 외쳤던 문충 출신이었다(공임순 2016). 이에 따라 잡지 『신천지』는 “민족진영의 입장을 대변하는 반공지적 입장 전환 (서울신문사 1985: 162)을 통해 “친정부적 논조를 띤(서울신문사 2004: 347) 정부 기관지로 다시 태어났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번역된 「공자와 민주주의」는 공자의 실제 업적과 그의 영향력에 관해 자세히 분석한 다른 장을 번역하기보다는 원천 텍스트 전체를 간략히 요약해 주는 1장만을 골라 번역하는 전략을 통해 공자의 생애와 가르침이 민주주의와 밀접히 관계되어 있었음을, 그리고 그 가르침을 자그마치 2천 년 동안이나 전체주의 정부가 호도하였음을 모두 드러내는 번역본을 만들어냈다. 이에 더해 공자와 민주주의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제목 번역과, 특정 본문을 탈 맥락화시키고 재배치하여 공자의 사상이 목표 텍스트의 초반부부터 민주주의와 연관되어 읽히게 하는 전략을 통해 독자들이 공자와 민주주의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기사를 읽어가도록 유도하는 한편, 공자를 전체주의자로 호도하였던 전체주의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내러티브를 강화하였다. 또한 미시 단계 텍스트 번역을 통해서 공자가 우호적으로 표상되도록 내러티브를 프레이밍 하여 그의 성품과 업적이 더욱 긍정적으로 묘사되거나 혹은 그가 잘못 이해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번역 주체는 공자가 개척한 민주주의가 더 긍정적으로 여겨지게 내러티브를 프레이밍 하였다. 공자 자신에 대한 존재론적 내러티브와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에 대한 공적 내러티브를 다시 프레이밍 하는 이러한 전략들은 전체주의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서문과 맞물려 공자의 철학과 유사한 민주주의의 우월성은 물론 전체주의의 비윤리성을 함께 드러내는 공적 내러티브를 강화하는 효과를 낳았다.

국유화 직후 『신천지』는 권두언에서 “38선 철폐, 민생문제 해결, 반민족자 처단 등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상전, 선전전 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반공)사상대책 수립 이 필요하다 밝힌 바 있다(오종식 1949: 6-7, 이봉범 2010: 240에서 재인용). 따라서 위의 번역 전략은 당시 반공주의라는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하였던 사회문화적 맥락 및 번역 기관의 제도적 맥락을 반영하였다 볼 수 있다.

한편, 잡지 『월간 아메리카』는 미국의 대외 선전을 위해 출간한 잡지로, 한국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으로서 민주주의의 요소들을 교육하고(NARA Boyce Report: 26-27) 공산주의의 위협에 맞서 민주주의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당연히 잡지에는 공산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소개, 미국적 삶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야 했지만(ibid. 27) 그 내용들은 미국이나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선전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서는 안 되었다. 오히려 기사들은 정보를 제공하고 “지적 사고를 자극 하는 방식으로, 한국인들에게 이미 익숙한 개념을 통해 그들이 정치적 사고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잡지의 발간을 주도 및 감독하였던 이들의 방침이었다(ibid. 28-29). 따라서 『월간 아메리카』의 「공자론」 번역은 민주주의를 선전 및 교육하되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인물 및 개념을 통해 민주주의를 소개하고자 하였던 미공보원의 의중이 드러나는 지점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신천지』의 「공자와 민주주의」와 같이 1장을 번역하고 특정 본문을 재배치함으로써 민주주의가 독재주의와는 차별된다는 내러티브를 프레이밍 한 것은 『월간 아메리카』의 「공자론」 번역이 『신천지』의 「공자와 민주주의」 번역과 공명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다. TT2는 공자의 전 생애를 간략히 다룬 1장에 더해,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에 대한 저자의 견해가 주로 담겨 성격상 1장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후기를 함께 번역하였다. 또한 번역 주체는 후기에 나타난 민주주의의 본래적 결함에 대한 저자의 언술을 삭제하여 한국인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는 민주주의의 딜레마에 대한 내용은 의도적으로 줄인 반면,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독재주의를 경고하는 내러티브는 거의 전부 번역하였다. 즉, 공자의 가르침을 왜곡하였다는 점에서 전체주의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데 그친 『신천지』의 번역과는 달리, 이 잡지에서는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설명하고 그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독재주의의 위협이라는 공격 내러티브를 생생하게 독자들에게 전달하면서 경고하는 동시에 공자의 가르침을 들어 그러한 사태

를 방어하는 범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TTI과 달리 제목에서 공자와 민주주의를 직접 연결 짓지 않은 것은 이러한 측면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시 단계 번역의 예에서도 역시 유사한 전략이 보인다. 『신천지』 번역의 예처럼 번역 주체는 공자와 관련된 존재론적 내러티브를 좀 더 긍정적으로 프레임링 하여 공자의 이미지와 그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다고 주장하는 민주주의의 이미지를 우호적으로 그리는 공적 내러티브를 프레임링 하는 동시에, 독재주의의 약점과 비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번역 전략을 통해서 독재주의의 위험성이라는 공적 내러티브를 더욱 강조하였다.

TTI과 구별되는 위의 번역 전략은 『월간 아메리카』의 발간 목표 및 미국의 대한 문화정책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미군 철수 이후 주한 미국 공보원을 통해 문화정책을 수행하면서 “공산주의의 정치적 숙임수(skulduggery)를 전복 시키고 한국인들이 민주주의적 정신(democratic concept)으로 무장하여 그들의 정부가 공산주의의 진격을 마주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 중 하나였다(NARA, 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 in Korea: 2). 게다가 미국은 스스로를 “해방자 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한국인들은 “이등시민(second-rate citizens) 으로(Oral History Interview with Richard D. Weigle) 명명하면서 한국인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여겼다. 이러한 연유로 『공자론』의 번역은 공자라는 익숙한 인물을 통해 한국인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갖고 있는 감정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오히려 민주주의의 우월성과 공산주의(독재주의)의 유해성이라는 내러티브를 프레임링 하는 등의 방식으로 민주주의와 독재주의에 대한 교육까지 염두에 둔 번역이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자의 권위를 강조하였던 서문의 의미가 있다. 서문과 사진 삽입을 통해 미국 출신 교수가 공자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권위가 있다는 내러티브를 프레임링 하면서 목표 텍스트의 내용이 모두 근거 있고 그럴듯하며 배울 가치가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다. 특히 후기의 경우 민주주의와 독재주의에 대한 저자의 견해로 가득 차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5. 결론

본고에서는 잡지 『신천지』와 『월간 아메리카』에 실린 *Confucius, the Man and the Myth*의 번역본을 사회적 내러티브 이론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두 번역본은 거의 비슷한 시기인 1949년 10월과 1950년 2월에 발간되었고, 두 잡지 중 번역본이 겹치는 거의 유일한 예다. 이 두 번역본은 이미 논의한 대로 번역 텍스트 선정에서부터 번역 방식에 이르기까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두 잡지는 태생부터 “왜곡 되었다는 판단을 받은 저서를 선택하여 한국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번역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왜곡된 저서를 선택하여 그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번역함으로써 공자의 일생과 유교 사상의 전과 과정 등, 유교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겪어온 역사는 모두 삭제하고 공자와 민주주의, 전체주의(독재주의)라는 내러티브만 남겨 공자가 민주주의 선전 도구로 사용되게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두 잡지 모두가 당시 한국인들에게 민주주의 사상을 주입시켜야 하는 선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 잡지를 출간한 당시 두 기관의 제도적 맥락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았으므로 그 결과물에도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한국 정부의 기관지였던 『신천지』는 TTI가 출간된 당시 정부의 정치적 필요인 국내 내부 평정 작업을 위한 반공주의 선전에 좀 더 초점을 맞추었다. 국유화 이후 이 잡지에 실린 번역의 경우 상당수가 “태평양동맹 특집 등과 같이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기사를 번역하여 정부 정책을 간접적으로 선전하거나 「*소련의 對衛星國 政策*」, 「*체코슬로바키아의 내막*」, 「*싼 로-란-북대서양동맹의 제창자*」와 같이 공산주의 및 소련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번역 기사를 상당수 실었던 사실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발, 이승만 정권의 정치적 기반 부족 등과 같은 정부 수립 초기의 어려움을 반공주의로 돌파하고자 하였던 정부의 정책과, 이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였던 정부 기관지 『신천지』라는 기관과 편집진 및 번역가들의 의지 발현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월간 아메리카』에서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한국에 민주주의와 전체주의를 교육시킨다는 목표까지 반영된 번역이 시행되었다. 이는 이

잡지가 미국의 대한 문화정책의 일부이자 프로파간다 도구로서 공산주의의 전진을 막기 위해 미국의 우월성을 홍보하고 민주주의를 교육해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잡지에는 『신천지』에 비하여 「정부의 원리」, 「국제연합과 국제연맹」, 「출판의 자유」, 「정당」 등, 민주주의와 관련된 개념과 제도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기사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즉, 한국인 독자들을 민주주의와 그 실현 방식 등에 좀 더 직접적으로 노출시키고 교육해 신생 정부가 민주 정부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하여 결국 한국이 악화되는 냉전 속에서 반공 방벽이 되길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이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 방벽이 된다는 것은 곧 미국이 악화하는 냉전 속에서 동아시아 및 전 세계에서의 영향력을 잃지 않게 된다는 의미기도 하다. 결국 두 번역물이 번역 방식에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인 것은 번역 기관이 갖고 있었던 목표의 유사성 및 차이점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잡지는 당시 약 매달 1만 5천 부에서 6만 부까지 발행되었던(김용권 1979: 99) 인기 잡지로, 당대 발간되었던 잡지들 중 발행부수 기준으로 상위 5위 안에 들었다(NARA Boyce Report Appendix: 1). 이러한 두 잡지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번역을 통해 프레이밍 된 친민주주의, 반전체주의/독재주의, 전체주의의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는 등의 공적 내러티브는 한국인들의 세계 인식에 영향을 미쳐 새로이 수립된 민주 정부를 국내의 혼란 및 국제적 냉전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유지시키고 냉전적 국가 정체성 및 이데올로기를 굳건히 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 강지혜 (2012) 「번역에 대한 제도적 관점의 중요성 고찰: 제도번역 개념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3(5): 7-32.
- 강지혜 (2017) 「근대계몽기 제도번역을 통한 서양의학 지식 생산과 확산: 제중원의 의학교재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3(3): 7-31.
- 공임순 (2016) 「박종화와 김동리의 자리, “반탁운동의 후예들 과 한국의 우파문단」, 『사학연구』 121: 41-79.

- 국무회의록 (1949) 「서울신문사 중역진 개정에 관한 건」 6월 15일.
- 김수자 (2016) 「20세기 초 최남선의 “세계적 지식 의 전달 방식」, 『한국문화연구』 42: 193-225.
- 김순영 (2019) 「추리소설에서 결텍스트의 역할: 엘러리 퀴의 『X의 비극』 영한 번역본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0(3): 233-245.
- 김예진 (2019) 「해방기 *Song of Ariran* 번역과 중간과 민족주의의 발현」, 『번역학연구』 20(5): 7-34.
- 김예진 (2021) 「공공외교와 교육용 번역: 잡지 『월간 아메리카』에 실린 「학생 영어교실」을 통해 본 미국의 헤게모니 구축」, 『통번역교육연구』 19(4): 25-50.
- 김예진, 탁진영 (2021) 「정부수립기 제도번역 사례 연구: *The Struggle behind the Iron Curtain*」, 『번역학연구』 22(2): 9-45.
- 김용권 (편저) (1979) 「월간 아메리카: 미국문화 수용의 한 연구」, 『해방후 미국문화의 수용과 전통 문화의 변용』,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95-123.
- 김옥동 (2010) 『근대의 세 번역가』, 서울: 소명출판.
- 김윤성 (1965) 「신문부수를 육박하였던 신천지」, 『현대문학』 11(8): 234-236.
- 김준현 (2009) 「1940년대 후반 정치담론과 문학담론의 관계 - 『신천지』에 나타난 ‘민족’과 ‘민족문학’ 기호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27: 51-84.
- 김학재 (2009) 「여순사건과 예외상태 국가의 건설: 정부의 언론탄압과 공보정책을 중심으로」, 『제노사이드연구』 6: 155-203.
- 서울신문사 (1985) 『서울신문 40년사』, 서울: 서울신문사.
- 서울신문사 (2004) 『서울신문 100년사』, 서울: 서울신문사.
- 서중석 (2009) 「이승만과 여순사건」, 『역사비평』 86: 302-338.
- 안종수 (1994) 「공자의 덕과 효사상」, 『동방학지』 86: 69-89.
- 이봉범 (2010) 「잡지 신천지의 매체 전략과 문학」, 『한국문학연구』 39: 199-267.
- 이봉범 (2022) 「냉전텍스트 『실패한 신(The God That Failed)』의 한국 번역과 수용의 냉전 정치성」, 『대동문화연구』 117: 415-465.
- 이혜승 (2015) 「제목 번역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통번역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3-7.

- 이희정 (2016) 「잡지 신천지를 통해서 본 ‘전후 인식’ 양상」, 『세계문학비교연구』 22: 83-115.
- 지신영 (2022) 「해방기 잡지 신천지의 매체 특성과 시문학」, 『국제한인문학연구』 32: 121-156.
- 차재영 (2018) 「선전으로서의 도서 번역」, 『한국언론학보』 62(3): 187-212.
- 편집부 (1950) 「전 세계에 분포된 미국공보원」, 『월간 아메리카』 2(4): 16-17.
- Baker, Mona (2006) *Translation and Conflict*,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Baker, Mona (2010) ‘Reframing Conflict in Translation’, in Mona Baker (ed.) *Critical Readings in Translation Studies*, New York and Oxon: Routledge, 113-129.
- Baumgarten, Stefan (2012) ‘Ideology and Translation’, in Yves Gambier and Luc van Doorslaer (eds)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Volume 3*,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59-65.
- Duyvendak, J. J. L. (1950) ‘Confucius, the Man and the Myth by H. G. Creel’, *T’oung Pao* 39(4/5): 357-364.
- Ewick, Patricia, and Susan Silbey (1995) ‘Subversive Stories and Hegemonic Tales’, *Law and Society Review* 29(2): 197-226.
- Genette, Gérard (1997) *Paratexts: Thresholds of interpretation*, trans. by Jane E. Lewin and Richard Macksey, Cambridge, New York and Melbourne: Cambridge UP.
- Harding, Sue-Ann (2012) *Beslan: Six Stories of the Siege*, Manchester & New York: Manchester UP.
- Harding, Sue-Ann (2014) “‘But We Don’t Read Professor! Translation, Bloomsbury Qatar Foundation Publishing, and Building a ‘Vibrant Literary Culture’, *Perspectives* 22(4): 511-533.
- Kang, Ji-Hae (2009) ‘Institutional Translation’, in Mona Baker and Gabriela Saldanha (eds)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second edi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41-145.
- Kim, Ye Jin (2018) ‘Translation, National Ideology and the Cold War in the

- Republic of Korea (1949-1950)', PhD dissertation, SOAS, University of London.
- Kim, Ye Jin (2019) 'Building Democratic South Korea', in Ji-Hae Kang and Judy Wakabayashi (eds)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in Korean Contexts: Engaging with Asian and Western Other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94-111.
- Lau, D. C. (1954) 'H. G. Creel: *Confucius the Man and the Myth*',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16(1): 182-185.
- Lefevere, André (1992) *Translation, Rewriting, and the Manipulation of Literary Fam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Mossop, Brian (1988) 'Translating Institutions: A Missing Factor in Translation Theory', *TTR* 1(2): 65-71.
- Somers, Margaret R. (1992) 'Narrativity, Narrative Identity and Social Action: Rethinking English Working-Class Formation', *Social Science History* 16(4): 591-630.
- Somers, Margaret R. (1994) 'The Narrative Constitution of Identity: A Relational and Network Approach', *Theory and Society* 23(5): 605-649.

<인터넷 자료>

- NSC 48/2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49v07p2/d387>
-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 The Truman Doctrine 1947: <https://www.archives.gov/milestone-documents/truman-doctrine>
- Oral History Interview with Richard D. Weigle: <https://www.trumanlibrary.gov/library/oral-histories/weigl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Documents>

- Boyce Report (Appendix), Record Group (RG) 59 Records Relating to International Information Activities 1938-53 series, Box 152.
- 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 in Korea, RG59 Records Relating to

International Information Activities 1938-53 series, Box 113.

<분석텍스트>

Creel, Herrlee G. (1949) *Confucius, the Man and the Myth*, New York: John Day.

서울신문사 (1949) 「공자와 민주주의」, 『신천지』 4(9): 136-39.

주한 미국 공보원 (1950) 「공자론」, 『월간 아메리카』 2(2): 4-7.

[Abstract]

**Translating Confucius and Implanting Democracy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Translations of *Confucius, the Man and the Myth***

Ye Jin Kim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wo translations of *Confucius the Man and the Myth* (Creel 1949) to disclose that the translating strategies of two governmental translating institutions served to promote the institutional ideologies and/or objectives. By analysing paratexts, macro- and micro-level translations drawing on socio-narrative theory, this study uncovered that the translation in *Shinchunji* tried to promote democracy for stabilizing the fledgling South Korean government. By directly linking Confucius and democracy through the text selection and paratextual translation, and describing Confucius more positively through micro-level translation, Confucius' support for democracy was illustrated more positively in *Shinchunji*. The translation also stressed the unethical character of totalitarianism by emphasizing a totalitarian government's appropriation of Confucian philosophy. Meanwhile, the translation published in *Wolgan Amerika* served to educate Koreans about the nature of democracy and threat of totalitarianism. Through text selection to micro-level translation, the translator not only portrayed democracy more positively and totalitarianism more negatively but also chose to stress the vulnerability of democracy to totalitarianism. Additionally, by emphasizing the authority of the author, the translation validated the contents and intended to be used as an educational material. Thus, the translations served the objectives of the institution—selling democracy and preparing Koreans for the threat of communism.

Keywords: *Confucius, the Man and the Myth*, Institutional Translation, *Shinchunji*,
Wolgan Amerika, Democracy

주제어: 『공자, 인간과 신화』, 제도번역, 『신천지』, 『월간 아메리카』, 민주주의

김예진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HK연구교수

yejinkim0131@skku.edu

관심 분야: 번역사, 제도번역, 내러티브 프레임

논문 투고: 2022년 11월 9일

1차 심사 완료: 2022년 12월 9일

2차 심사 완료: 2022년 12월 17일

게재 확정: 2022년 12월 23일